

선교편지 2022년 9월

저희에게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30-11:00 까지 TEE 교재 (모세 오경)로 현지 목회자들에게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새로운 목회자들도 참석하게 되고, 그들의 요청도 있어서 모세 오경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후에 목회자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제자 목회자들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 TEE 성경 공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렵고, 힘들어 하고, 지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제자 목사들이 강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에, 제자들을 양육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후원교회와 후원자님들의 덕택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자 목회자들 중에 르네 목사에 관하여 그의 삶과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르네 목사가 저희 TEE 성경 공부에 참석한 지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회를 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살 집도 없었습니다. 르네 목사의 그 당시 상황은 짙은 안개가 끼인 것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뿐인 환경이었습니다.(It's all over with him) 제자 목사들과 합심하여 르네 목사가 목회할 곳과 집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월세 2만원을 낼 상황이 안되어 월세 집에 모여 예배 드리다가 갈 곳이 없는 르네 목사님을 위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르네 목사를 섬기라’ 는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적당한 땅을 발견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희가 주님의 심부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르네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땅을 구입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땅의 일부에 대충 나무와 천막으로 집(하꼬방)을 만들어 가족 4명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한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빌리지 안에 있는 목회하기에 좋은 부지를 보게 하셨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부지를 구입하게 해 주셨습니다. 부지를 구입한 후에 주님께서 다른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르네 목회자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목회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10년째 교인도 별로 없고, 저희 부부가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주 월요일에 하는 TEE 성경공부는 지속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르네 목사의 성실한 성경 공부 자세를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극한 가난을 참고 사는 르네의 아내 노마 사모가 안스러워, 교회에 갈 때마다 쌀과 과일을 사 들고 가고, 몰래 돈(love offering)을 손에 쥐어 주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하늘나라에 먼저 간 후에 안 사실이지만, 그래서 주일이면 저희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늘 아침에 저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르네목사님은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더 저희 사역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르네 목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등학교 부근 교회에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이들과 학생 전도에 초점(focus)을 맞추어서 전도집회를 하자고 제안하여, 여러 번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길거리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목회자로서 길거리 전도와 찬양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해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두 딸은 결혼을 하여 사위들이 목회를 잘 돕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닥 타일공사만 지원을 했는데, 에어컨을 설치하고 악기들을 마련하여 리더들을 훈련시키며 키워내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관할 수 밖에 없는 목회 현실속에서 르네 목사를 건져 내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단 월요일마다 성실하게 와서 공부를 해온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실력이 쌓여 코로나로 인한 팬더믹 기간에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건물도 세우고 전교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현지 제자 목사들의 영적 성숙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 2) 가족들의 영적 건강, 정서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 3) 현지 시골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사역을 위하여
- 4) 아들의 가정(며느리, 손자)의 건강과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 5) 딸(현주)의 결혼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르네 목사님이 섬기는 Grainfields Christian Church (곡식 밭 크리스천 교회):

| BEFORE (2014년) | AFTER (2020-2022년) |
|---|--|
|  |  |
|  |  |

